

## 美國의 大選以後 對韓半島 政策 展望

김 창 준

(미연방하원의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계화다 국제화다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특하면 대남도발을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1988년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았는데 실패했고 그 뒤 노동 1호를 쏘았는데 그것이 성공이 됐습니다. 이 노동 1호는 사정거리가 2,000km나 되어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자신의 영토가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을 시작했고 급하게 인공위성을 띄워 북한에 대한 정보입수와 군사적 움직임 감시는 물론 북한 연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북한의 정보파악이 어려워 사진과 함께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영변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AEA에서 정식으로 NPT조약에 의해 핵사찰을 하겠다고 하자 북한은 NPT에서 빠져나오겠다고 탈퇴선언을 했고 NPT에서 빠져나왔다가 가입을 해야 서로 기술을 교환하기 때문에 사찰을 하라고 해서 다시 NPT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찰단에게는 발전소임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개가능한 것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직도 확실히 북한이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공화당에서는 사찰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여 완전한 통제를 하는 강경정책을 쓰자고 요구했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만만큼은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온건정책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한가지 느낀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우리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대북정책이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대북정책은 핵무기를 막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은 통일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처럼 한·미간에 서로 입장과 시각의 차이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한국의 통일을 가장 원하는게 미국이고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도와줄 나라 역시 전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은 미국과 같이 동맹을 해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도 같이 하는 것이고 미국은 대한민국의 국토방위 하나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진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문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붕괴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반란세력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면 지도체제만 바뀔뿐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평양에 사는 잘 사는 사람들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거라면서 절대 체제를 바꾸려 안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식량배급을 통해 주민통제와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격리된 사회속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연흡수 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북한 정부가 급식을 다 못하게 되자 물물교환도 하게되고, 군인들도 물물교환을 눈감아 주고 있는데서 점점 자유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북한이 개방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제 생각은 첫째,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2+2(미국, 북한, 남한, 중국을 포함한 대화)를 제안한 것입니다. 둘째는 대화를 통한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문을 열어가지고 관광도 하고 문화교류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에서는 자유경제가 실현될 것이고 자본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강력하게 미국과 유대관계를 맺고 북한의 무력남침에 대비할 수 있다면 저는 북한과의 통일은 굉장히 낙관적이라 봅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아예 전쟁소리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둘째, 미군 주둔 문제입니다. 북한의 무력남침에 대한 염두를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지금 받아들일 재정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나누어 먹는 한이 있더라도 또 10년간 고통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금번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 반드시 사과를 받고 통일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민족적인 견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산체제에서 정보체제로 바뀝니다. 그럼 어차피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이 경제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저희는 한국이 앞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머리가 좋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절대 뒤지지 않고 전망이 좋은 이때에 북한의 지하자원과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면 경제도 희생되리라 생각합니다.